



금융노련의 IMF 제소운동과 대구라운드

하익준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 장책부장

거를 돌아보는 것은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1997년 경제위기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논의들이 많은 한계를 가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당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면서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한 이런저런 진단이 있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여러 논의와 진단들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잘못을 범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과거를 여러 측면 가운데 한가지 면만을 갖고 분석함으로써 실수를 범한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IMF 위기'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런 노력을 통해 위기의 원인 가운데 외부성, 즉 외세의 개입을 재조명함으로써 앞으로의 대응책을 되짚어보는 시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대구에서 개최된 <대구라운드>의 성과는 주

목할만하다. 국제투기자본, 강대국, 그리고 그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금융기구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 대구라운드는 IMF의 경제간섭 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시의적 절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금융노련은 '대 IMF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라는, 국내에서는 열토당토않다고 생각되던 문제를 가지고 대구라운드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것은 대구라운드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금융노련의 활동을 소개하고, 1999년 현재에서 이 운동의 의미와 향후 방향을 검토한다.

바쁘고 알찼던 99년

올해 새로 출범하게 된 이용득 집행부는 인력과 자원의 한계 속에서도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첫째, 제2차 구조조정 저지 투쟁과 고용

안정이다. 작년 한해 극심한 인원감축에 맞서 싸웠던 금융노동자였기에 이것이 활동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24일에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2만여명의 금융노동자가 모여 대규모집회를 가진 바 있으며, 올 공동임단협에서는 고용안정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여 총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IMF와의 정책협의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와 IMF간의 협상이 진행중 이던 금융감독원 정책협의장을 기습 방문하여 금융노동자의 항의 의지를 안팎에 과시하기도 했다.

둘째, 산별노조 전환의 토대를 다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임단협을 공동으로 전개하였다. 2번의 전간부워크숍과 수

시로 개최된 대표자회의를 통해 산별노조 전환 문제를 금융노련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시켰다. 그 과정에서 산별노조특위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10월 2일에는 산별전환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셋째, 근로조건의 개선과 연봉체 도입 저지 투쟁이다. 무자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십 년간 다져온 근로조건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금 우리 금융연맹은 여기에 맞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임금체계와 인사제도 개악에는 적극 맞설 계획이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9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이

올해 금융노련은 9개 시중은행과 6개 지방은행이 공동으로 임단협을 시행하였다.



공동으로 임단협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IMF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노동운동 방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80년대에서 90년대에 걸쳐 노동운동 전반에 깔려있는 '조합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 제기였다. 전반적인 자본의 변화를 직시하지 못하거나,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전개되는 노동조합 활동의 한계를 지적한다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IMF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올해 연맹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향후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이기도 하다.

IMF 제소 운동과 대구라운드

1998년 9월 29일, 금융노련 산하 9개 은행 3만여 노동자는 사상 처음으로 총파업 수위의 투쟁을 조직했지만, 결국 4만 여명의 금융노동자가 직장을 떠나야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올해 새로 전열을 가다듬고, 연맹 활동을 전개하면서 작년 상황을 되짚어 볼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 과정에서 IMF 문제가 제기되었다. 연맹은 금융감독위원회나 사용자를 상대로 싸웠지만 이미 많은 결정이 IMF와의 협약에서 결정된 것이었기에 투쟁은 이미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연맹은 대표자 회의를 통해 IMF에 대한 문제제기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그 방법으로 IMF를 상대로 소송을 하자

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이후 연맹에서는 IMF의 정책과 행적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지난 3월 호주에서 열린 국제상업사무노련(FIET) 세계총회에서 본 사안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여 참가 노조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하였다. 그 힘을 바탕으로 IMF 서울사무소장을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지난 5월 내한한 IMF의 캉드쉬 총재 면담시 소송 의사를 밝혔다. 이와 동시에 국내에서 세소 운동을 함께 할 단체를 모색해 왔다.

하지만 처음에는 상당히 싸늘한 시선을 받았다. 한마디로 '넌센스'라는 지적이었다. "성립될 가능성도 없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망신이다. 논리적인 비약이며, 무지의 소치이다." 이런 견해들이 주류경제학자들로부터 나왔다. 심지어는 국제투기 자본을 비판하는 것은 국내 재벌을 옹호하는 견해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고, 필요하지만 금융노련이 선점한 사업에 뒤늦게 동참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견해도 있었다. 이 상황에서 연맹의 문제제기와 궤를 같이 하는 대구라운드를 점하게 되었고, 금융노련과 대구라운드는 필연적으로 연결고리를 공유하게 되었다.

대구라운드는 외채를 칠겠다는 채무자의 적극적인 도덕성(moral)을 바탕으로 정당한 국제금융질서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운동이다. 즉,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운동은 글린국 외채탕감운동인 쥬빌리 2000(Jubilee 2000) 운동, ATTAC(국제

국제투기자본, 강대국, 그리고 그 이익을 대변하는 국제금융기구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본 대구라운드는 IMF의 경제간섭 2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금융거래과세연합)의 국제투기자본규제 운동과 택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라운드가 세계 차원의 운동을 지향하면서 국제 투기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국제금융기관 문제를 의제로 삼게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고, 그 모티브를 제공한 것이 금융노련의 대IMF 손해배상청구소송 운동이었다. 우리 연맹의 IMF 제소 운동이 해외학자, 시민운동가, 법조인, 노동운동단체 등으로부터 폭넓고 열린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세계적으로 IMF 등 국제 금융기관의 문제점이 폭넓게 지식되었고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99년 6월말 G7+1정상회담이 열린 독일 뮌헨과 ATTAC 회의가 열린 프랑스 파리에서 금융노련과 대구라운드가 함께 한 연대활동은 이후 금융노련이 대구라운드에 작게나마 인력과 자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해외 활

금융노련은 대구라운드에서 IMF제소운동을 제기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동의 결과 제소운동이 대구라운드의 핵심 주제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대구라운드는 금융노련의 제소활동에 키다란 힘을 실어 주었다. 그리하여 대구라운드는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국제금융기관을 개혁하기 위한 세계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을 합의하게 되었다.

IMF 제소 배경

금융노련이 IMF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론적 근거는 IMF 구제금융 신청 과정과 정책내용에 근거하고 있다. 외환위기 초기에 일본 은행을 비롯한 국제금융기관이 한국이 빚진 외채의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막다른 골목으로 끌어간 이유와 IMF에서 덜러를 지원하면서 내진 각종 조건을 제검토하였다. 물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무렵에도 IMF의 요구에 대한 문제 세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국내 보수언론과 정부관료, 해외 언론 등에 의해 떨붙일 여지가 없었다.

당시 IMF에 대한 작은 지식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수입선다면화제도의 폐지, 정리해고제 법제화 요구가 IMF의 설립취지나 기능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또한 한국 경제위기의 주된 원인은 국제 투기자본의 집단 이탈로 인한 주식시장의 폭락과 환율의 급상승, 이에 대한 한국은행의 환율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 유동성 부족과 채권국의 채무상환 독촉 등에서 악화되고 있었음을 직시한다던, 당시에 필요한 조치는 각 나라 채권기관과

의 협조와 외환유동성의 충분한 공급을 통한 '심리적' 안정이어야 했다.

그러나 IMF는 환율 방어를 위해 무제한의 금리상승을 용인하도록 하고, 국내 유동성 공급 및 거시경제운용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이어진 외채 만기 협상을 통해서 국제금리 수준에 비춰 턱없이 높은 금리로 단기 재연장을 유도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업의 연체도산과 실업자 양산이었고, 국제투기자본의 막대한 이익창출이었다.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 채무자가 파산에 처하게 되면 채권자도 일정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정상이다. 사실 IMF 위기를 재촉한 채무는 대개가 민간 채무였다. 그런데 IMF 긴급자금지원 이후 채무의 성격은 국가 보증이라는 성격으로 변화되어, 한국 정부가 돈을 빌려준 국제금융기관과 투기자본에게 땅 짚고 헤엄치는 장사를 보장했다. 이것은 우리가 IMF의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를 지적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공기업과 은행의 해외매각, BIS(자기자본비율)의 급격한 적용과 미래상환능력을 중심으로 한 신자산전성분류기준(LC)의 도입 강요 등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우그룹이 프랑스의 톰슨사를 인수하려고 하다 좌절된 사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BIS에서도 독일 등의 반대로 도입이 유보되고 있는 FLC의 도입을 IMF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좀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IMF 제소 운동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국내의 운동세력을 결집하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양대 노총 수준에서 조직화되지 않는다면 UN인권위원회 제소 투쟁은 현실적으로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많은 지지 얻어

이상의 간단한 이야기는 이미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 5월 내한한 캉드쉬 총재나, 6월에 사임한 푸빈 미국 재무부장관은 한국에서 IMF 정책은 적절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불과 3개월 후에 신임 미재무부 장관인 서머스는 한국과 태국에서 IMF가 취한 초기 정책은 '나쁜 충고' 있음을 비상원 청문회에서 고백하고 있다. 게다가 IMF가 이들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IMF 활동에 대해 불

신임 투표를 던져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당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행동이라고 판단되지만, 상황이 이렇게 반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IMF에 대한 전세계적인 반대 목소리와 행동이 승리를 향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제임스 토빈, 제프리 삭스, 폴 크루그만, 펜드 스타인 등 세계적인 경제 식학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IMF 정책의 잘못과 국제부기자본의 규제를 지적하고 있다. 대

글로 9대 시중은행 공동연단회를 마무리한 후 노시대표가 기념촬영을 함께 했다.



한국은행

구라운드에도 참여했던 미국의 '오십년이면 충분하다 네트워크' (Fifty Year is Enough Network)의 소렌 암브로스는 2차 세계대전후 탄생한 IMF 등 국제 금융 기관이 이제 그 기능을 다했다고 주장하며, 이의 개혁을 요구하는 활동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바로 이런 국제 상황의 전개 과정 가운데 IMF의 잘못된 정책을 반대하고 IMF 자체를 개혁하려는 상정적 활동으로서 IMF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금융노련의 활동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 2월부터 금융노련이 공식적으로 추진해온 활동은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여겨진다. 여기다가 국내적으로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물꼬를 뚫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기의 성격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면, 처방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IMF 제소라는 우리 연맹 활동의 근거는 바로 이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재벌개혁, 공공개혁, 금융개혁,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위기의 원인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내부의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런 논리를 전면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내부 문제점을 충분하게 비판해야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 더 근본적인 원인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핵심은 이런 조치의 근거가 해외의 초국

적 자본을 비롯한 '총자본'의 활동과 이의에 봉사하는 신자유주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국민경제 후생의 감소(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및 가격 인상)와 해외 독점자본에 의한 국부의 유출, 대량 실업과 고용의 질 악화(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 대량 전환), 실질임금의 감소와 이로 인한 삶의 질 저하가 초래되고 있다. 또한 자본·외환·금융시장의 자유화로 해외 투기자본의 활동을 무제한으로 확장하여 경제위기의 가능성을 부추기고 있으며, 소유자배구조의 변화와는 방향이 빗나간 '재벌개혁'이 현행 구조조정의 핵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노련의 IMF 제소는 정부의 신자유주의 개혁 조치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자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내일을 준비하며

지금까지 금융노련의 지난 활동과 IMF 손해배상 청구소송 운동의 목적, 그리고 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대구라운드를 간단하게 소개했다. 지난 9개월 동안 진행해온 IMF 제소 운동은 어느 분의 표현처럼 외로운 싸움이었다. 그러나 대구라운드와 함께 하면서 제소 운동은 상당한 성과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 물론 이런 활동이 언론매체에 자주 거론된다고 해서 그 임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대구라운드의 논의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활동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대구라운드는 국내 차원에서

대구라운드와 IMF 제소운동의 참뜻은 운동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이미 그러한 성과는 충분히 거두었으며, 더 진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IMF 세소부쟁을 적극 지지하는 결의문을 체택했으며, 이를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대하여 UN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활동을 언급한 바 있다. 이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그 활동이 금융노련의 몫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 역시 타당하다. 따라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IMF 제소 운동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국내의 운동세력을 결집하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양대 노총 수준에서 조

직화되지 않는다면 UN인권위원회 제소부쟁은 현실적으로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구라운드를 통해 거둬들인 많은 인적 자원을 결집해 내고, 전체 운동세력을 모아내는 양대 노총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두 조직의 적극적인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둘째, IMF에 대한 문제제기는 시작에 불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활동의 성과를 토대로 코앞에 닥쳐있는 세계무역 기구(WTO)와 다자간투자협정(MAI)에

이용족 금융노련위는 이미 IMF 손해배상청구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일부의 혁신적인 노력과 활동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은 아직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시급한 대응이 요구된다.

셋째, 무엇보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을 재검토하고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적극적인 대안에 바탕한 정책 대응이 있어야 한다. 공기업과 은행이 해외로 매각되는 상황에서 그것이 갖는 의미를 대안을 갖고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현재 해외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은행간 인수합병이 주는 적극적인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IMF 제소 운동을 전개하면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의 한국 사회를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되었다. 당시의 선조를 두고 많은 비판을 하지만, 우리가 그 입장에 처해 있다고 가정해보면 역시 마찬가지 결론이 지 않을까 생각된다. 당시 세계 자본주의가 변화하는 모습을 깜깜하게 몰랐기에 허동댈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주장하기에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미덥지 못하다. 정부가 떠들어대는 현재의 경기회복은 본질적으로 주기적인 경제위기의 확대라고 지적했던 대구라운드에 참여한 외국인의 견해를 귀담아 듣는다고 나쁠 것은 없을 것이다.

대구라운드에 관해 전문적 학술대회도 아니고 시민운동도 아니라며 폄하하는 주장도 새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전할 수밖에 없다. 대구라운드와

IMF 제소운동의 참뜻은 운동을 통해 인식의 전환을 이루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다. 이미 그러한 성과는 충분히 거두었으며, 더 진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전진을 위한 노력 없이 비판에만 몰두하는 것은 대구라운드의 진정한 의미를 새기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다. 이제 막 이러한 운동의 씨앗이 뿌려졌을 뿐이다. 그 씨앗을 잘 키워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운동세력의 임무다. 어떠한 형태든지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바로 보아야 하며, 과거 운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협소한 운동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은 연대해야 하며, 노동운동은 지금까지의 ‘조합주의’ 한계를 벗어나 자기혁신과 운동 지평을 확대하는 임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